

보도 일시	2022. 1. 27.(목) 09:00	배포 일시	2022. 1. 27.(목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	책임자	과장 용필성 (044-203-3181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정 (044-203-3179)

'21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.2%,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
- 코로나19 감염병 우려 이유로 체육활동 미참여 전년 대비 7.4% 포인트 증가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는 대한장애인체육회(회장 정진완)와 함께 전국 만 10세~69세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'(‘20년 10월~’21년 9월 기준) 결과를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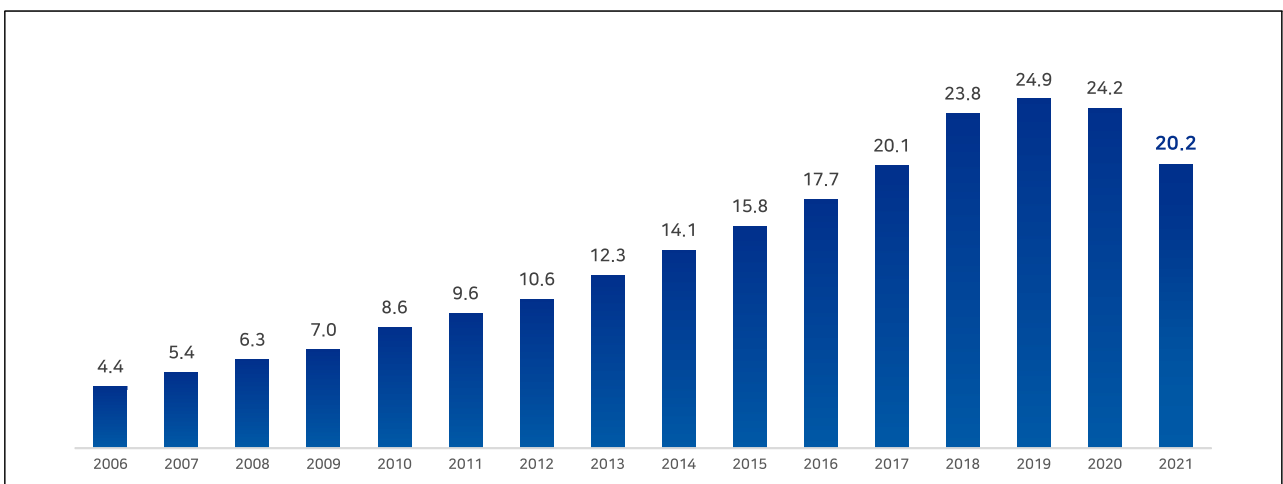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장기화로 '21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위축

조사 결과, '21년 생활체육 참여율*은 20.2%로 2020년 24.2% 대비 4%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동안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,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.

*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: 최근 1년간, 운동 실시, 재활치료 이외 목적, 주 2~3회 이상 운동, 1회당 30분 이상,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

<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연도별 추이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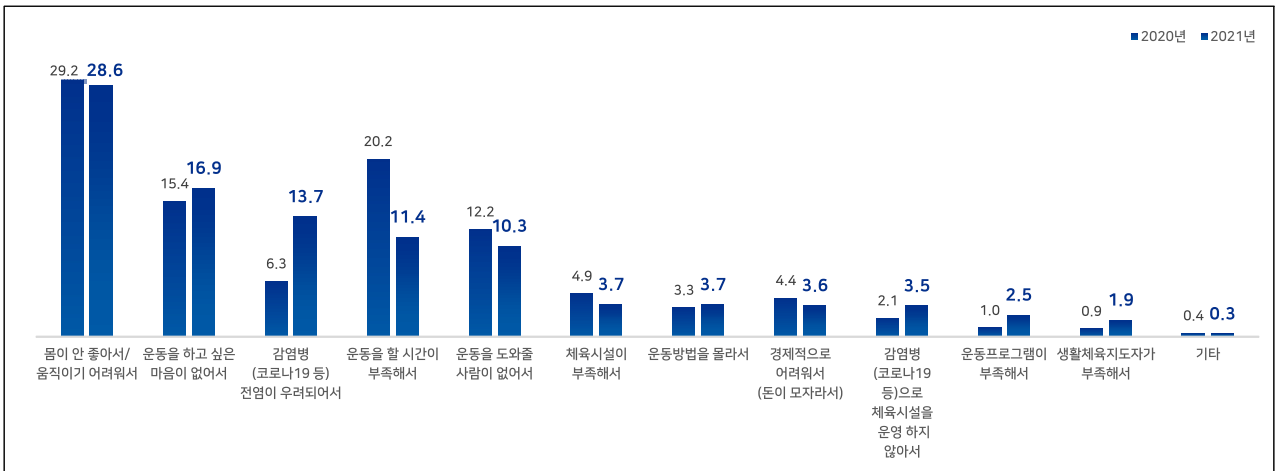


운동하지 않는 이유 1위 ‘몸이 안 좋아서/움직이기 어려워서’ 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 전년 대비 7.4%포인트 증가

최근 1년간 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, 1위는 ‘몸이 안 좋아서/움직이기 어려워서’(28.6%), 2위는 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’(16.9%), 3위 ‘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’(13.7%)로 나타났다. 특히 ‘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’가 전년 대비 7.4%포인트 증가한 반면, ‘운동할 시간 부족’, ‘운동을 도와줄 인력 부족’ 등은 감소해 장애인의 체육 참여에 코로나19가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.

<최근 1년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>

(운동 비경험자, 단위: %)



야외 등산로·공원 주로 이용, 코로나19 영향 집안 운동 전년 대비 5.8%포인트 증가

장애인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▲ ‘야외 등산로나 공원’(39.7%), ▲ ‘체육시설’(14.5%), ▲ ‘집안’(14.0%) 순으로 조사됐다. 전년 대비 운동장소로 ‘야외 등산로나 공원’이 7.9%포인트, ‘집안’이 5.8%포인트 증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운동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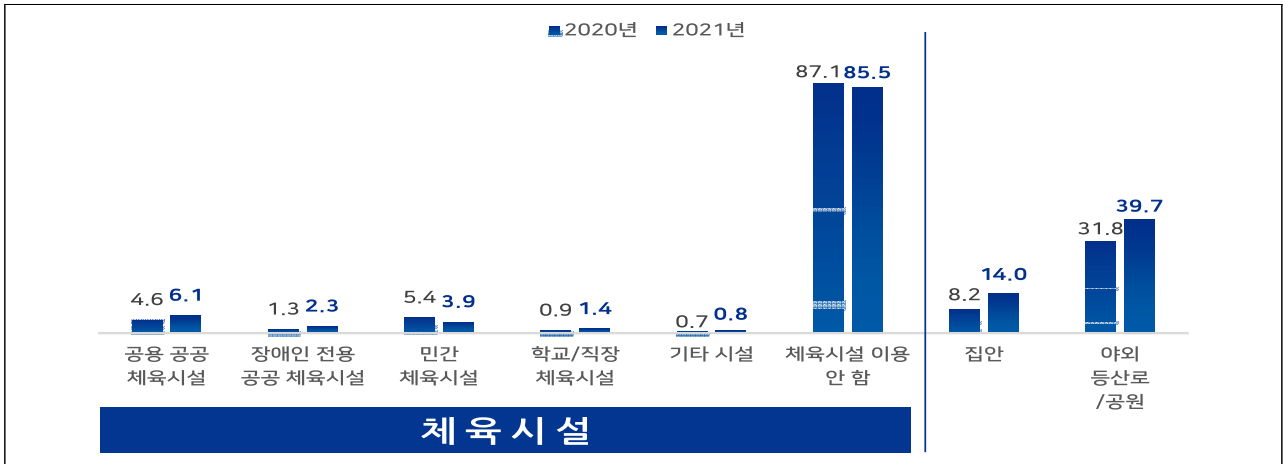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14.5%로 전년(12.9%) 대비 1.6%포인트 증가했다. 이는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여가활동보다는 건강과 체력관리 목적이 강한 경향*에 따라,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

운동 참여자의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 주로 이용하는 체육 시설은 ▲ ‘공용 공공체육시설’(6.1%), ▲ ‘민간체육시설’(3.9%), ▲ ‘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’(2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* (운동 참여 목적) 건강 및 체력관리 84.2%, 재활운동(치료목적 제외) 12.1%, 여가활동 3.5%, 기타 0.2%

<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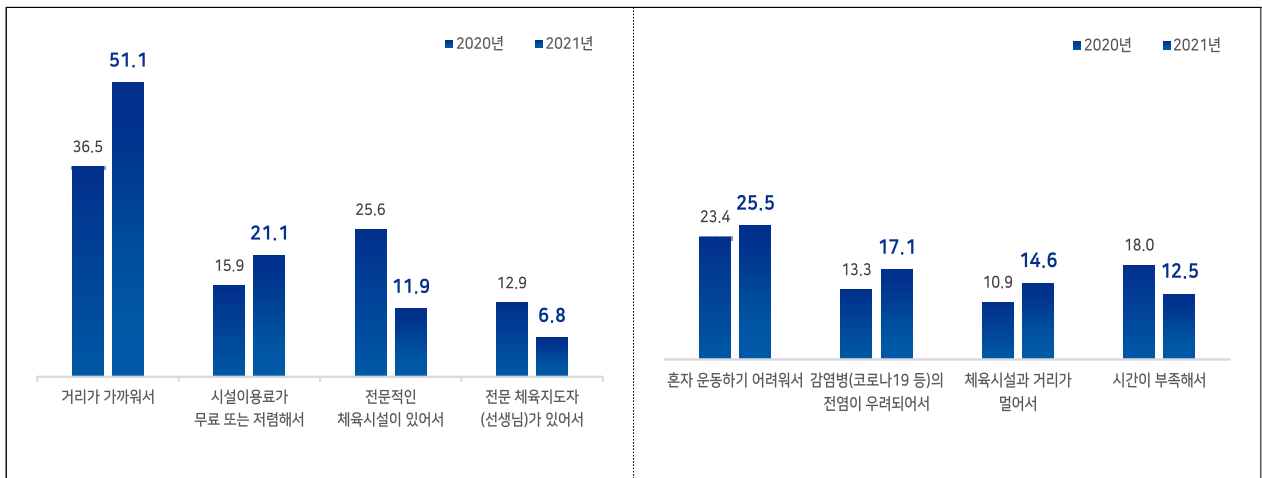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(장소)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▲ ‘거리가 가까워서’가 51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▲ ‘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’(21.1%), ▲ ‘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’(11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▲ ‘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’(25.5%), ▲ ‘감염병(코로나19 등)의 전염이 우려되어서’(17.1%), ▲ ‘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’(14.6%)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 특히 전년 대비 ‘감염병(코로나 19 등)의 전염이 우려되어서’라는 이유가 3.8%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/이용하지 않는 이유>

(주요 응답만 제시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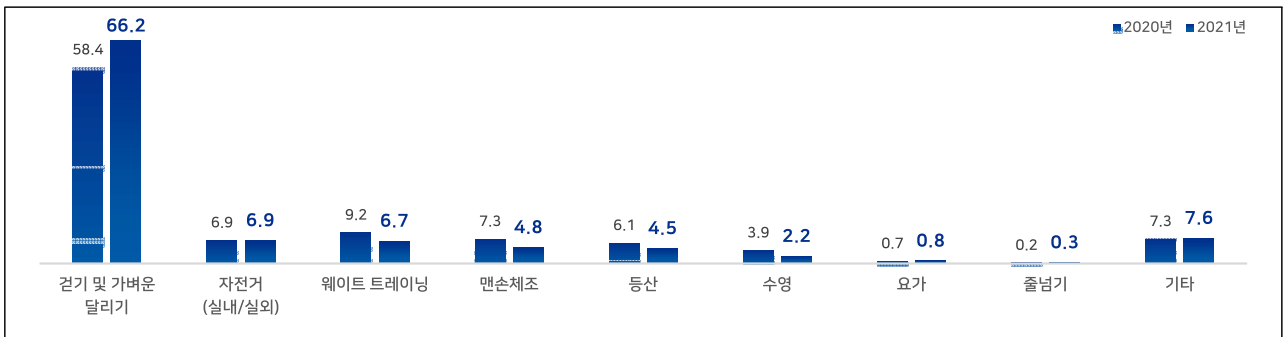


‘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’ 가장 선호, 전년 대비 7.8%포인트 증가

코로나19는 참여 운동 종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 생활체육 참여자가 주로 참여한 운동은 1위 ‘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’(66.2%), 2위 ‘자전거(실내/실외)’(6.9%), 3위 ‘근력운동(웨이트트레이닝)’(6.7%) 순으로 나타났다. 특히 근력 훈련(웨이트트레이닝)과, 수영은 각각 전년 대비 2.5%, 1.7%포인트 감소한 반면, ‘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’(66.2%)는 전년 대비 7.8%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,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.

<운동 참여 종목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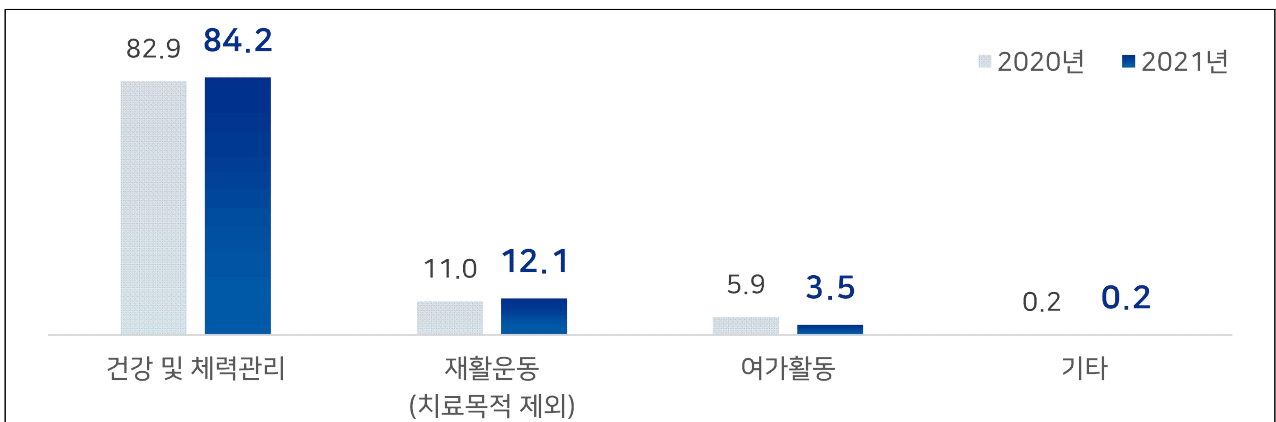


운동 참여 주요 목적은 건강과 체력 관리

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'20년에 이어 '21년에도 장애인의 운동 목적은 ‘건강 및 체력관리’가 84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다음으로는 ‘재활운동’(12.1%), ‘여가활동’(3.5%) 순으로 나타났다. ‘건강 및 체력관리’ 목적은 전년 대비 1.3%포인트 증가했다.

<운동 참여 목적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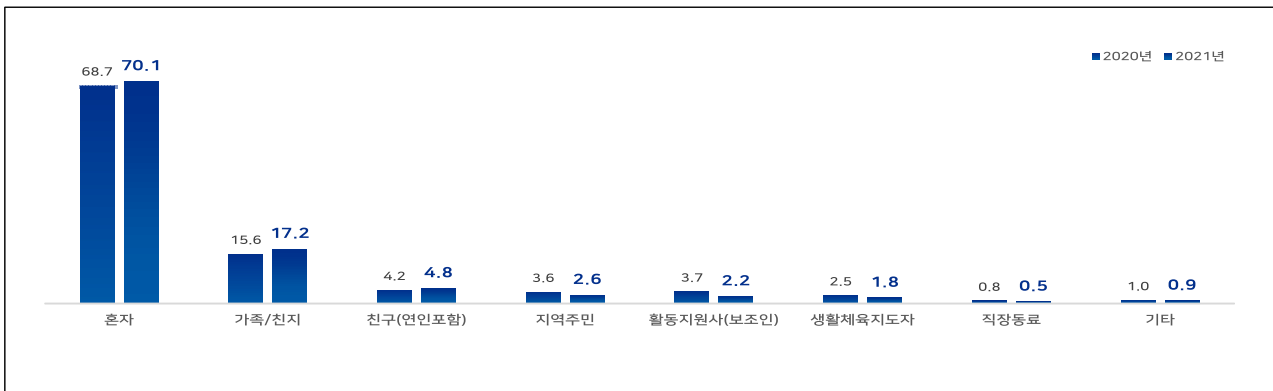


운동 참여자 중 70.1%, 동반 참여자 없이 혼자 운동

운동 시 동반 참여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‘혼자’가 70.1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는 ‘가족/친지’(17.2%), ‘친구’(4.8%) 순으로 조사됐다. 특히, ‘혼자’가 전년 대비 1.4%포인트 증가한 반면, ‘활동지원사’, ‘지역주민’이 각각 1.5%/1%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자 운동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.

<운동 동반 참여자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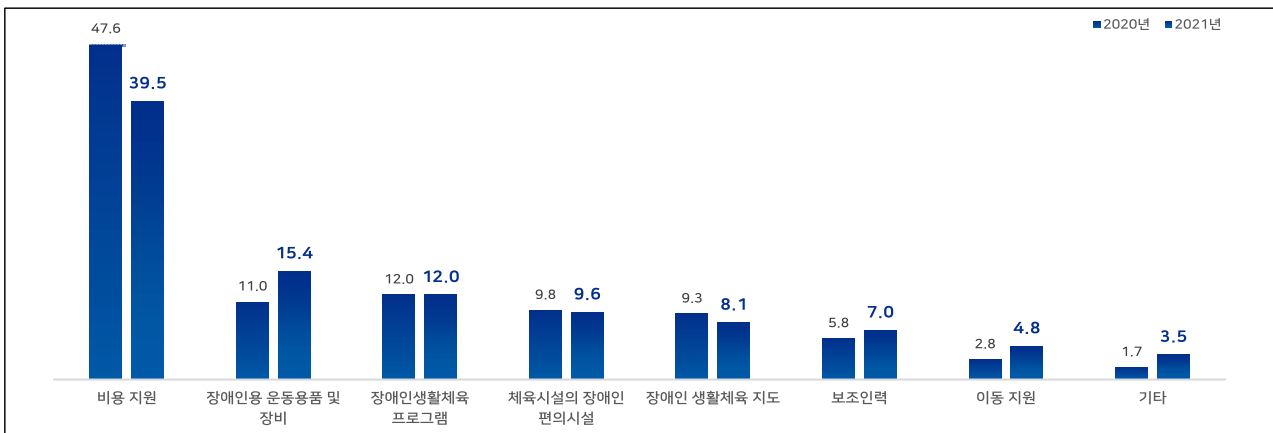


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‘비용지원’, 기초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

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는 ‘비용지원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.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‘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’(15.4%), ‘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’(12.0%) 등의 순이었다. 다만 전년 대비 ‘비용 지원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.1%포인트 감소한 반면, ‘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’는 4.4%, ‘보조인력’은 1.2%, ‘이동지원’은 2%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, 장애인의 체육 참여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.

<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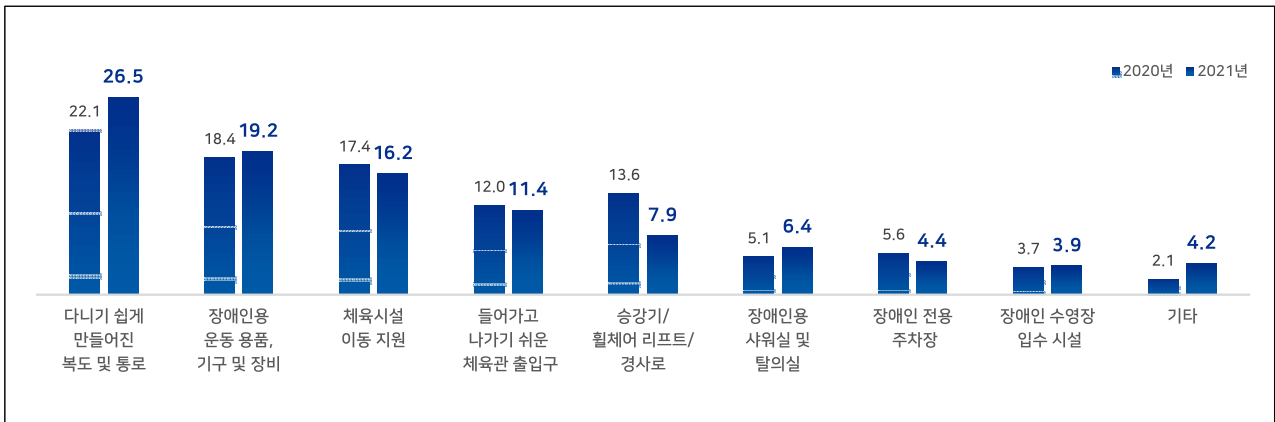


체육시설 편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‘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’

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‘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’가 26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는 전년 대비 4.4%포인트 증가한 수치다. 다음으로는 ‘장애인용 운동용품, 기구 및 장비’(19.2%), ‘체육시설 이동 지원’(16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장애인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, 이동권 지원 등 체육 시설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<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>

(단위: %)



문체부는 이번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장애인의 체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’ 규모와 수혜자 등을 확대하고 ‘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’를 통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, 생활권 내 체육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‘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확충’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.

※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현황

- (생활체육 기반 확충)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(반다비 체육센터) 본격 개관·운영 및 건립 확대('22년, 신규 20개소 40억 원, 기존 36개소 527억 원)
- (접근성 제고) ▲ 체육시설 접근성 낙후지역 대상 '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'

- 운영 확대('22년 60개소), ▲ 학교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('22년 2억 5천만 원, 신규)
- (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) 재가·중증·고령층 장애인 등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('22년 1,000명)
 - (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 지원)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신규 설치('22년 2개소)
 - (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) '장애인 가상현실(VR) 스포츠 체험관 시범 운영(2개소, 10억 원)
 - (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다양화) 노인 장애인* 대상 생활체육 지원('22년 85개소), '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' 추진(5억 원, 인천), 장애인 유형과 정도, 연령 등을 고려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지속 지원('22년 700개소)
 - (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) △ 지원금 인상('21년 8만 원→'22년 8만 5천 원), △ 지원 기간 연장('21년 8개월→'22년 10개월), △ 수혜자 확대('21년 7천 명→'22년 1만 명)

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(www.mcst.go.kr)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(www.koreanpc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붙임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주요 결과
 따로 붙임 2021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정보그림

담당 부서 <총괄>	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	책임자	과장	용필성 (044-203-3181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정 (044-203-3179)
<공동>	대한장애인체육회	책임자	부장	신원상 (02-3434-4505)



□ 조사 개요

- (조사기준 시점) '20년 10월 ~ '21년 9월
- (조사기간) '21년 11월 ~ 12월
- (조사대상)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등록 재가 장애인
 -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/언어, 발달, 기타장애 유형(중증, 경증 구분)
- (조사내용) ▲건강 및 체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, ▲체육활동 및 여건, ▲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실태, ▲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, ▲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와 혜택 등
- (조사방법) 1:1 개별방문 면접조사(필요시 유치조사, 전화조사 등 병행)
- (조사주기) 연 1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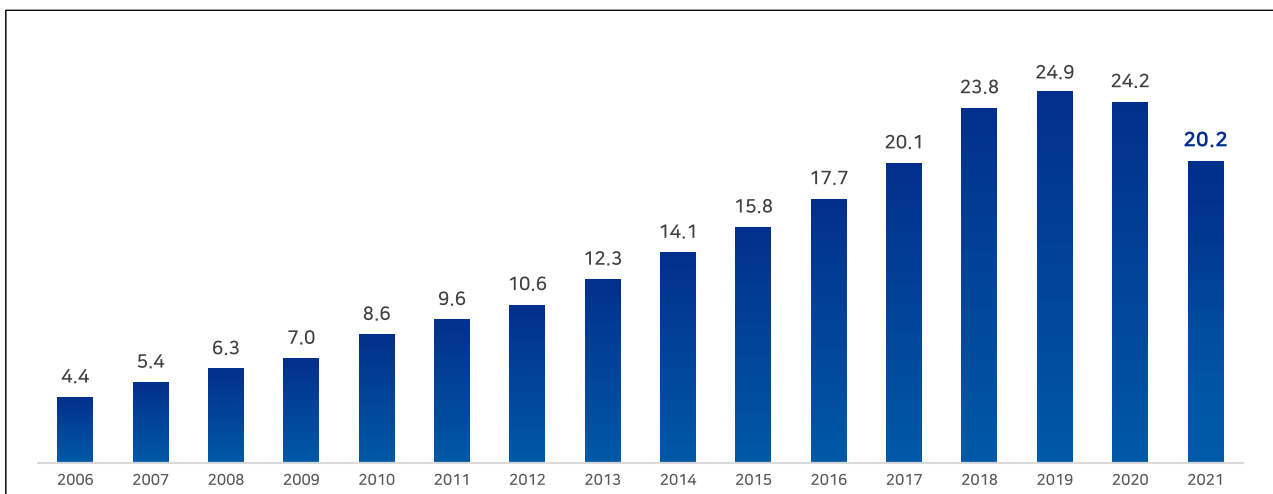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조사 결과

1. 생활체육 참여율

- 2006년 이후 2019년까지 완전 실행자 비율이 증가했으나, 2021년 완전 실행자 비율은 20.2%로 전년(24.2%) 대비 4.0%p 감소함

<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추이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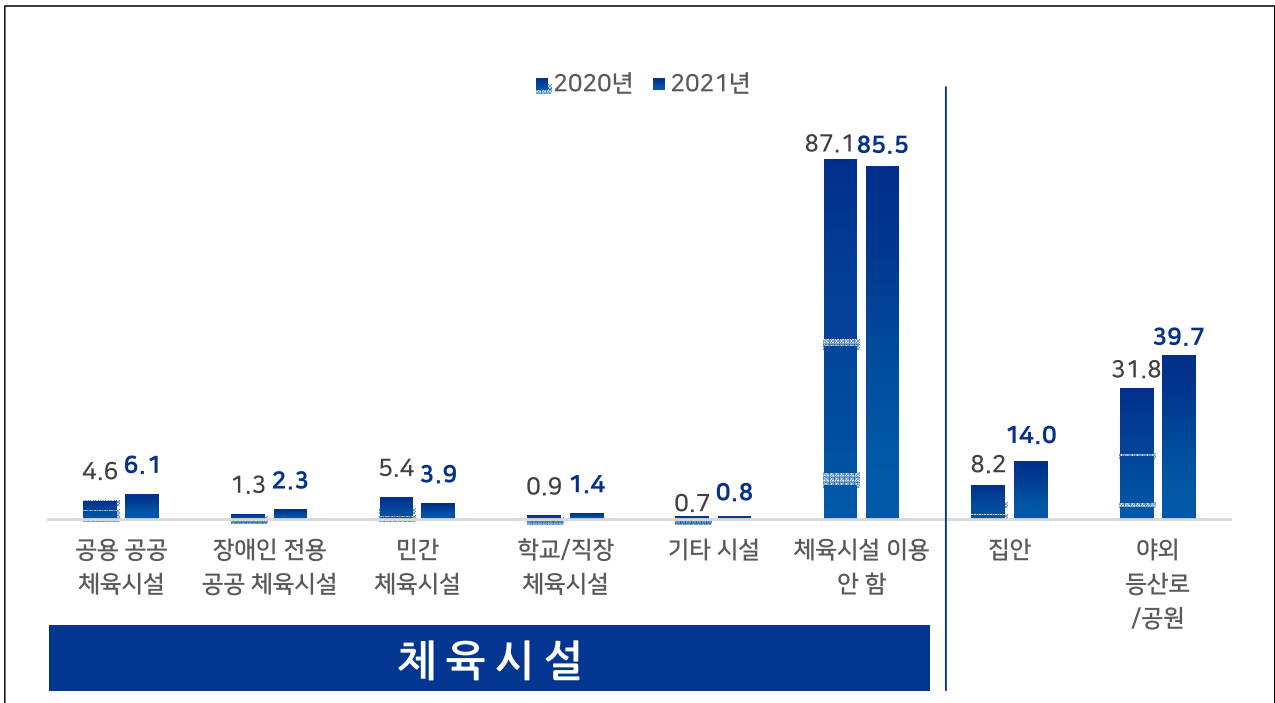
2. 체육활동 및 여건

1)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률

- 장애인이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14.5%로 전년(12.9%) 대비 1.6% 포인트 증가
-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'공용 공공체육시설'(6.1%), '민간체육시설'(3.9%), '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'(2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한편, 체육시설 외에 운동을 하는 장소로 '야외 등산로나 공원'이 39.7%로 높게 나타남

<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률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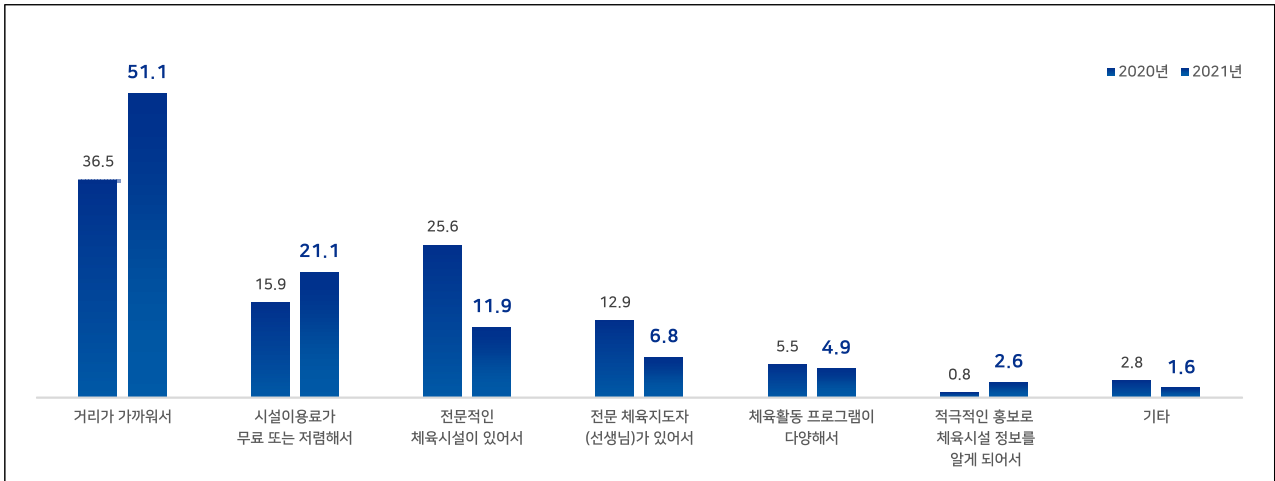


2)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 이유

-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 이유로 '거리가 가까워서'가 51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다음으로 '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'(21.1%), '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'(11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'거리가 가까워서'와 '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' 등이 증가한 반면, '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'와 '전문 체육지도자(선생님)가 있어서'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 이유>

(체육시설 이용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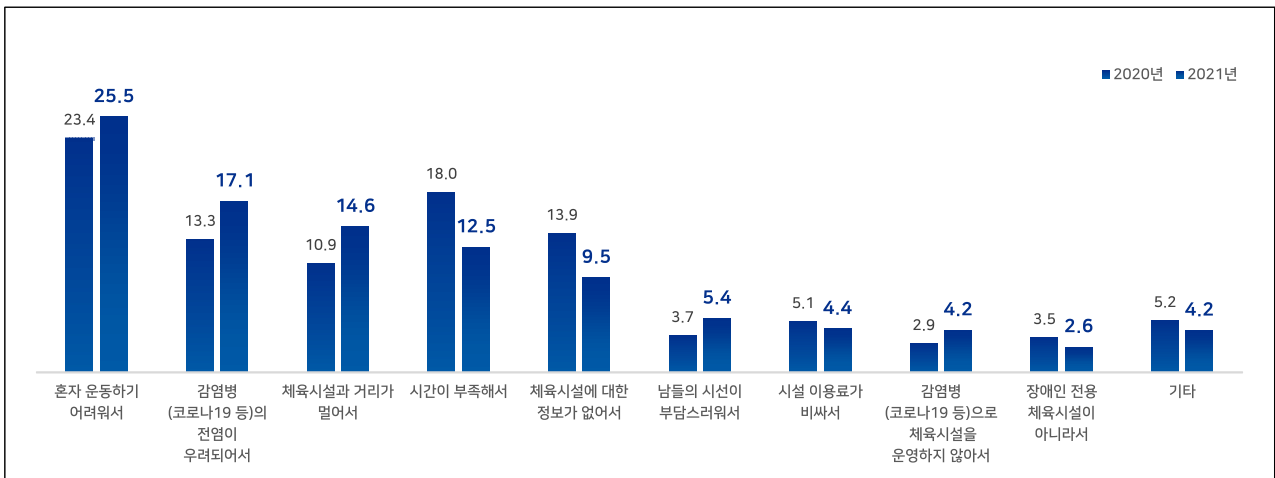


3)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

-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‘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’가 25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‘감염병(코로나19 등)의 전염이 우려되어서’(17.1%), ‘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’(14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‘감염병(코로나19 등)의 전염이 우려되어서’, ‘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’ 등이 증가한 반면, ‘시간이 부족해서’와 ‘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’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‘감염병(코로나19 등)의 전염이 우려되어서’와 ‘감염병(코로나19 등)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’를 응답한 비율은 각각 17.1%, 4.2%로 전년 대비 증가함

<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>

(체육시설 비이용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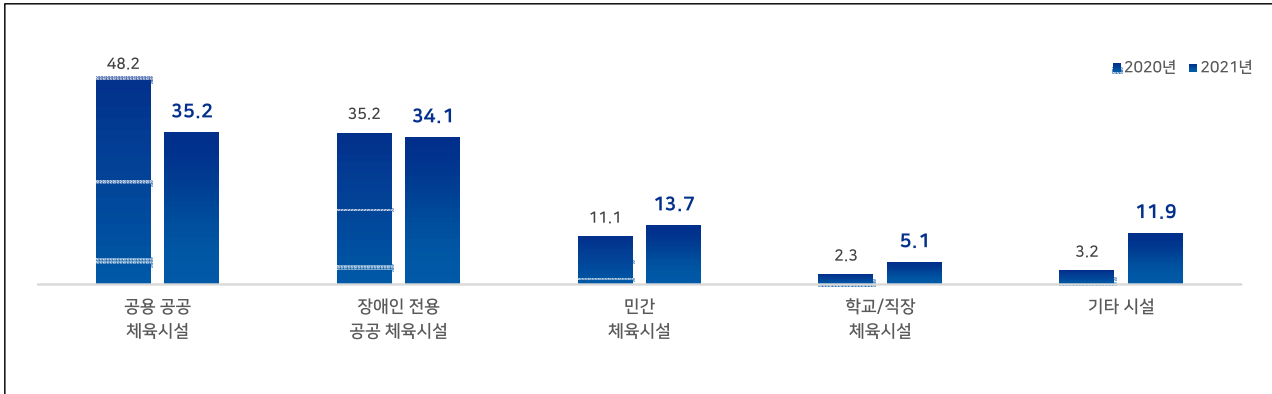


4) 생활권 주변의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

- 생활권 주변의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 ‘공용 공공체육시설’이 35.2%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, 그 다음으로 ‘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’(34.1%), ‘민간 체육시설’(13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생활권 주변의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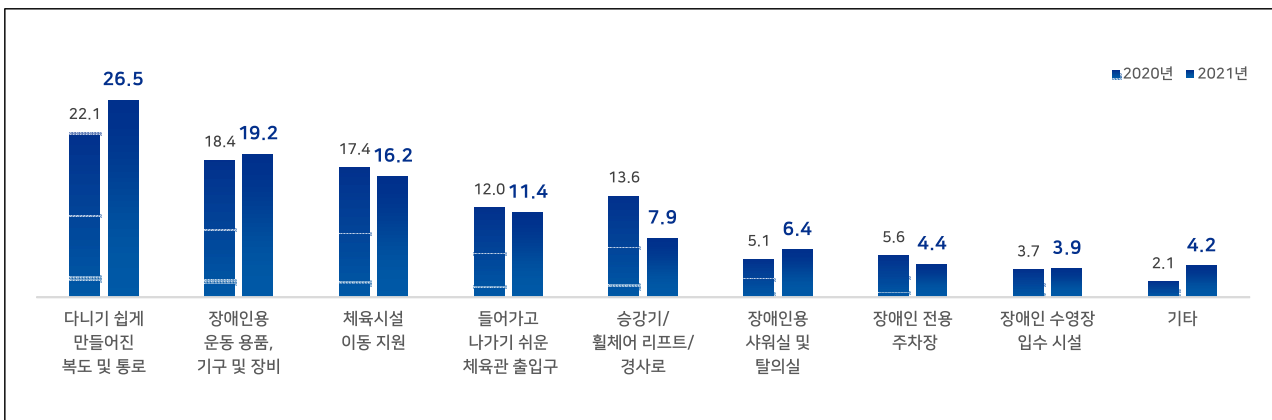


5)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

-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로 ‘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’가 26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‘장애인용 운동용품, 기구 및 장비’(19.2%), ‘체육시설 이동 지원’(16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‘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’ 응답은 증가한 반면, ‘승강기/휠체어리프트/경사로’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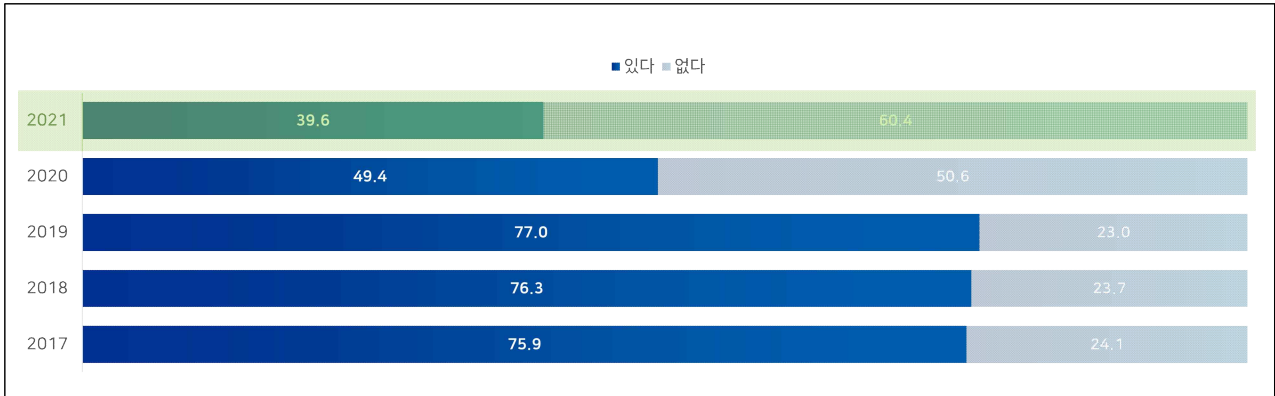
3.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실태

1)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중

- 최근 1년간 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39.6%였으며, 60.4%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

<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중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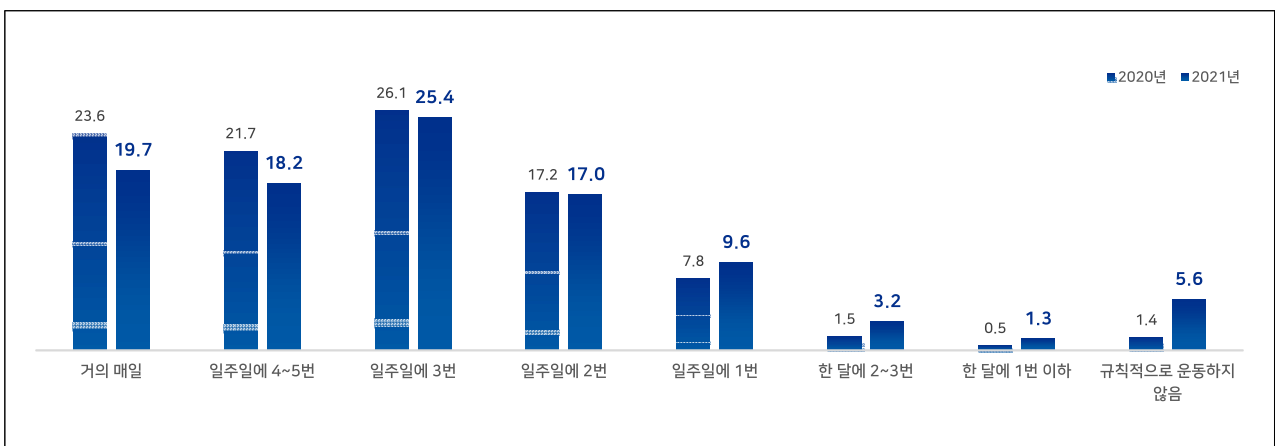


2) 운동 참여 횟수

- 운동 경험자의 운동 참여 횟수는 ‘일주일에 3번’이 25.4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‘거의 매일’(19.7%), ‘일주일에 4~5번’(18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‘일주일에 1번’과 ‘한 달에 2~3번’ 등은 증가한 반면, ‘거의 매일’과 ‘일주일에 4~5번’ 등은 감소함

<운동 참여 횟수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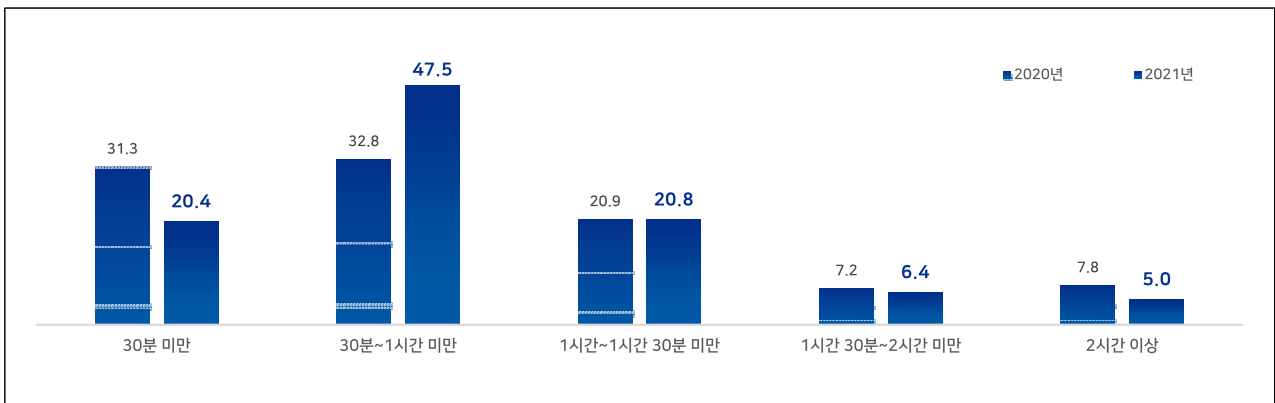


3) 1회 평균 운동 시간

- 운동 경험자의 1회 평균 운동 시간은 ‘30분~1시간 미만’이 47.5%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‘1시간~1시간 30분 미만’(20.8%), ‘30분 미만’(20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‘30분~1시간 미만’이 증가한 반면, ‘30분 미만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1회 평균 운동 시간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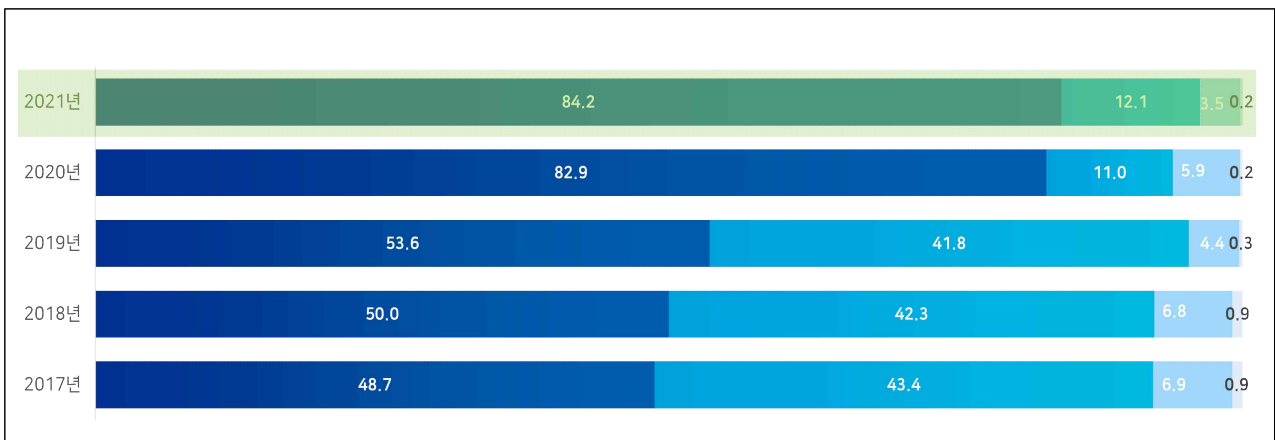


4) 운동 참여 목적

- 운동 경험자의 운동 목적으로 ‘건강 및 체력관리’가 84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‘재활운동’(12.1%), ‘여가활동’(3.5%), ‘기타’(0.2%) 순으로 나타남

<운동 참여 목적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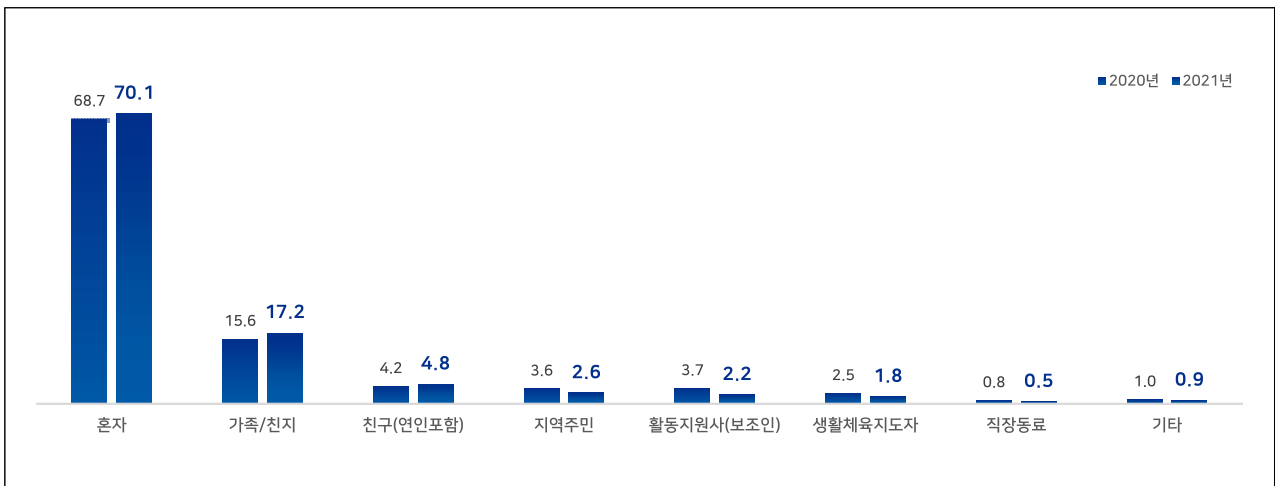


5) 운동 동반 참여자

- 운동 경험자의 동반 참여자로 ‘혼자’가 70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다음으로 ‘가족/친지’(17.2%), ‘친구(연인포함)’(4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‘가족/친지’, ‘혼자’ 등이 증가했으며, ‘활동지원사(보조인)’, ‘지역주민’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운동 동반 참여자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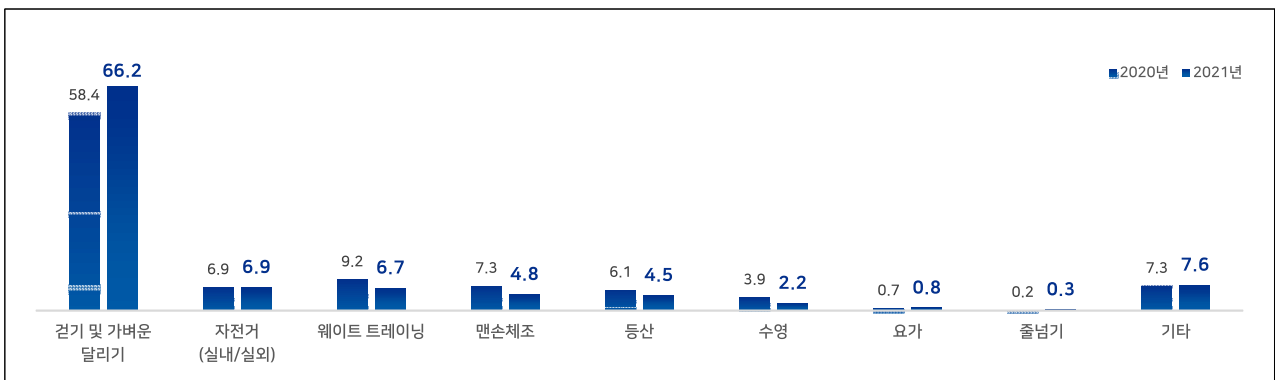


6) 운동 참여 종목

- 운동 경험자의 참여 종목으로 ‘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’가 66.2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‘자전거(실내/실외)’(6.9%), ‘웨이트 트레이닝’(6.7%) 등의 순임
- 전년 대비 ‘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’는 증가한 반면, ‘웨이트 트레이닝’과 ‘맨손체조’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운동 참여 종목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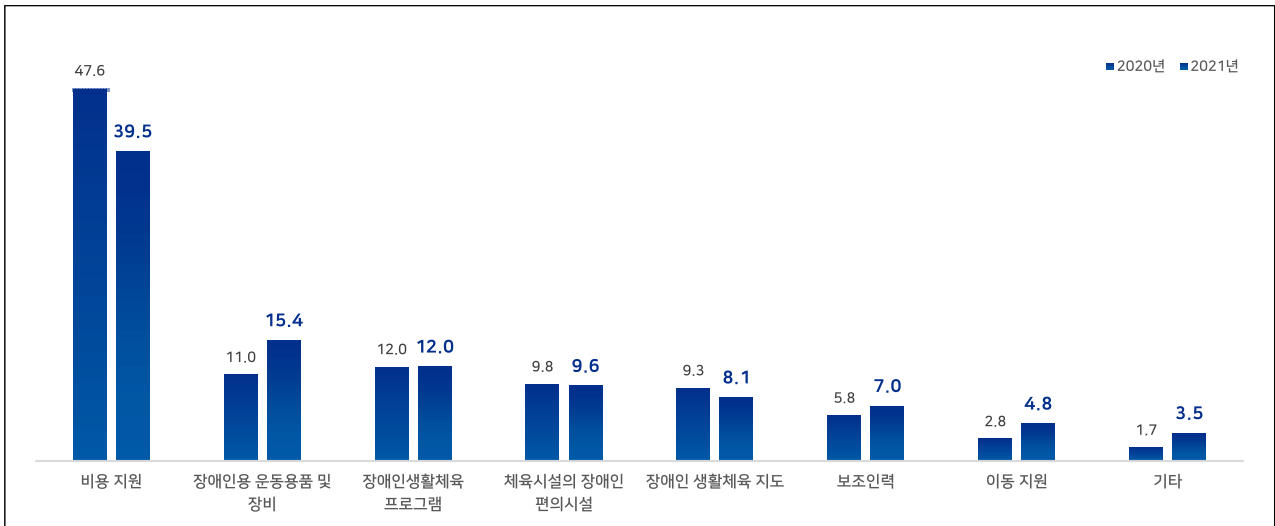


7)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

-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‘비용 지원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.5%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‘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’(15.4%), ‘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’(12.0%) 등의 순임
- 전년 대비 ‘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’와 ‘이동지원’은 증가한 반면, ‘비용 지원’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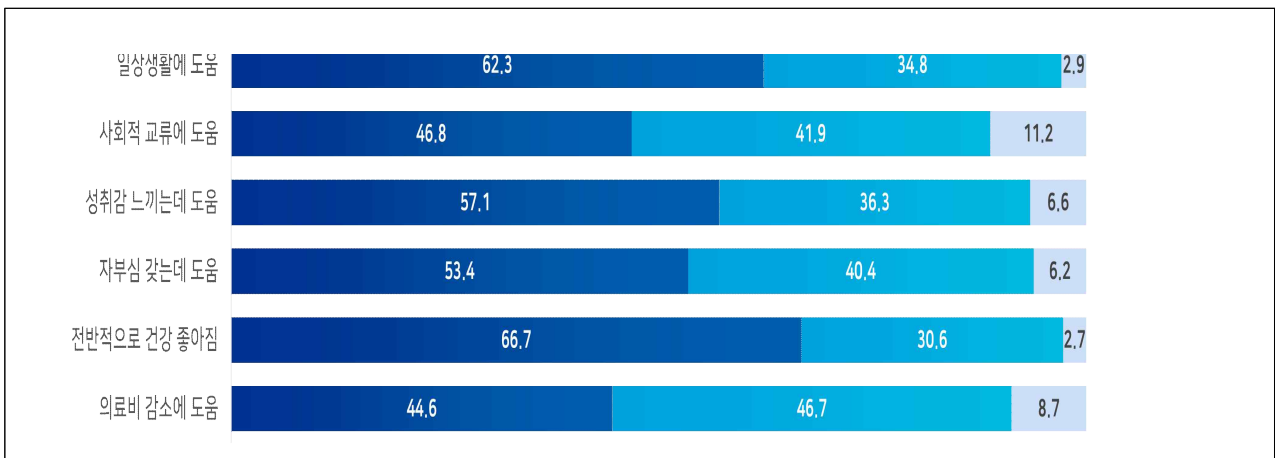


8)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

-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에 대한 긍정 평가(매우 도움 됨+도움 됨)는 ‘신체적 활력에 도움’이 72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‘스트레스 감소 및 정신적 안정에 도움’(71.8%), ‘체력 향상’(70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>

(운동 경험자, 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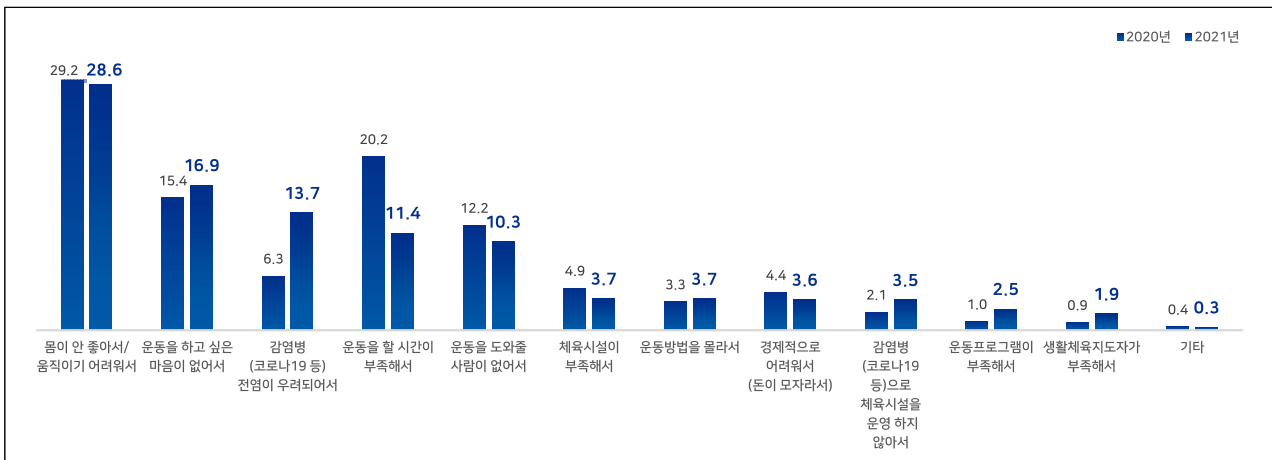
4.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

1) 최근 1년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

- 최근 1년간 운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‘몸이 안좋아서/움직이기 어려워서’가 28.6%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, 그 다음으로 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’(16.9%), ‘감염병(코로나19 등) 전염이 우려되어서’(13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‘감염병(코로나19 등) 전염이 우려되어서’와 ‘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’ 등이 증가한 반면, ‘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’와 ‘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’ 등은 감소
- 한편, ‘감염병 전염 우려’와 ‘감염병으로 체육시설 미운영’이 각각 13.7%, 3.5%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<최근 1년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>

(운동 비경험자, 단위: %)



2) 운동 참여 시 희망 종목

- 운동 비경험자의 향후 운동 참여 시 희망 종목으로 ‘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’가 39.7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‘수영’(12.7%), ‘재활운동’(8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‘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’는 증가한 반면, ‘맨손체조’, ‘보디빌딩(웨이트트레이닝)’ ‘재활운동’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

<운동 참여 시 희망 종목>

(운동 비경험자, 단위: %)

